

## 비(非)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조 윤 지                  유 순 화\*  
울산과학대학              부산대학교

한국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양친가정이 늘어나게 되어 이들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비양친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실시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통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국회전자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2009년 4월 1일 현재로 검색 가능한 연구물이었다. 수집한 연구논문은 총 131편이었으나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논문 55편이 최종적으로 메타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1.19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학교급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초등학생이 가장 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혼성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제일 크고, 다음으로 여성집단, 남성집단 순이었다. 셋째,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사회성,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프로그램 유형은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집단크기는 4-9명, 집단 회기 수는 8-10회, 회기 당 시간은 90-120분미만으로 구성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앞으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상의 결과들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양친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해 치료적 중재가 필요할 때,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여러 접근 중에서 집단상담이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주요어: 비양친가정, 한부모가정, 집단상담, 메타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유순화,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051-510-2605, E-mail : shyoo@pusan.ac.kr

현재 한국 사회는 기존 혈연중심의 가족체제가 붕괴되는 이른바 가족해체현상을 겪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로 ‘가족해체’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경제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도 가족해체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혼자 사는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祖孫)가구, 세쌍가정가구(소년, 소녀가장가구)등이 급증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08). 이제는 한국 사회의 가족해체현상을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으로, 시대적인 변화의 커다란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가족해체현상은 이혼가정과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비(非)양친가정(이하 비양친가정)\*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그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08). 과거에는 부모의 사망이 소위 ‘결손가정’의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이혼이나 별거, 유기, 방임, 한쪽 혹은 양쪽 부모의 가출, 미혼모 증가 등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비양친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 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는 비양친가정의 자녀들이다. 비양친가정 자녀들은 가족관계 해체와 가족 내 역할의 변화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이삼연, 2002; Capaldi & Patterson, 1991). 비양친가정 자녀들은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 전학 같은 일상생활의 물리적 변화 뿐만 아니라 한쪽 또는 양쪽 부모의 상실, 분리와 같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부모의 부재, 특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급작스럽고 부정적인 변화는 비양친가정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정현숙, 1993; Amato & Keith, 1991). 결국, 비양친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혼란은 대인관계와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에서 사회적, 심리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부정적 영향들이 문제행동과 이탈현상으로 이어지

게 되는 경우가 많다(박한샘, 연문희, 2004).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비양친가정, 당시 ‘결손가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70년대에는 주로 가족해체현상과 해당가정 자녀의 비행이나 부적응을 관련시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는 비양친가정 자녀들의 특성과 부적응 양상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으며,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들면서 양친가정 자녀와 비양친가정 자녀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가 많아졌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비양친가정, 특히 이혼가정과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들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비양친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치료의 중재적 차원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다(김경집, 2005).

가족해체현상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미국에서는 이혼가정을 포함한 ‘broken family’ 자녀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와 같은 환경적 중재와 그것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broken family’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자주 보고되었다(Emery, Kitzmann & Waldron, 1999; Kalter, Pickar, & Lesowitz, 1984; Stolberg & Mahler, 1994). 국내에서는 조운희(1990)가 처음으로 비양친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성, 사회성의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후로 비양친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연구물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비양친가정 자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의 연구들은 세부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 비양친가정은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부재한 가정을 뜻하는 조어로서 결손가정의 대체어로 볼 수 있다. 결손(缺損)이라는 용어가 결핍이라는 부정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데 반해 비양친가정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다.

김영아와 이미옥(2007)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한 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우울수준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불안수준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한 반면, 오은순(2001)은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수준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진경(2005)은 REBT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나 하위척도인 가정적 자아존중감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박미혜(2003)는 REBT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여중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연구들이 긍정적 효과성을 보고하는 가운데 약간의 상이한 결과들이 공존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접근도 다르고, 연구대상도 아동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며, 집단설계와 연구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를 비교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하더라도, 단편적인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론은 비양친가정 자녀들의 적응과 복지를 위한 심리치료적 중재로서 집단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실시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개별 연구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 즉 효과크기(effect size)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으로, 분석들의 분석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오성삼, 2003). 한 두 연구에서 심리치료, 상담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의 효과성이 공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김계현, 2007). 메타분석은 수많은 연구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여 일관성 있게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는

계량적, 수량적 접근방법(김계현, 2007)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는 박소연(1994)이 처음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후 김수진(2001)이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효과 메타분석 연구를 시행하였고,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2002)에 의해 국내 집단상담의 성과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실시된 후로 꾸준히 집단상담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가 시행되었다. 임은미, 임찬오(2003)는 진로지도 및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강진령, 손현동(2004)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조성은(2004)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 메타분석 하였다. 채명희(2006)는 학교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성과연구를 메타분석 하였고, 송성환(2006)은 집단괴롭힘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유승은(2008)은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집단상담의 여러 영역에서 메타분석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비양친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가 커다란 변혁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과정과 역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장호와 김정희(1992)는 집단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집단 구성원의 특성을 들고 있으며, 강진령(2004)은 집단의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 회기의 길이, 모임 빈도수, 모임 시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집단과정과 역동에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에서 실시된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학교급)별로 평균 효과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소연(1994)이 실시한 일반 자아개념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유아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2.50로 가장 크고, 초등학교 4-6학년의 평균 효과크기가 1.34, 중학생의 평균 효과크기가 1.07, 고등학생의 평균 효과크기가 0.77로 나타나 연령과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평균 효과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김수진(2001)의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학교급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의 증가와 감소를 구분할 수 없었다. 임지선(2001)의 연구에서는 14-16세 청소년 집단에서 가장 큰 평균 효과크기(1.22)를 보였으며, 김계현, 이윤주, 이왕자(2002)는 초등학생집단의 효과크기(1.13)가 가장 크고, 중학생(1.00), 고등학생(1.02), 대학생(0.64) 집단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가 나타나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평균 효과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박소연(1994)은 남자로 구성된 집단의 평균 효과크기(1.23)가 여성집단(0.77)과 혼성집단(1.11)의 평균 효과크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수진(2001)은 혼성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1.96으로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고, 조민아(2004)도 혼성집단(1.27)의 프로그램 효과가 남성집단(0.87)과 여성집단(1.08)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강진령, 손현동(2004)은 여성집단(0.46)과 혼성집단(0.45)이 평균 효과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임은미, 임찬오(2004)는 남녀 혼성집단의 평균 효과크기(0.67)가 남성집단(0.84)과 여성집단(0.77)의 평균 효과크기보다 작았다고 보고하였다.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2002)는 집단상담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슈탈트, 교류분석, 심리극, 인간중심 - 현상학, 인지행동, 현실치료/해결중심, REBT 집단상담으로 분류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이론적 접근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2004)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한 표현예술(1.20)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민아(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집단상담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평균 효과크기는 자기성장 집단, 현실치료/해결중심 집단상담, 심리극, 의사소통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집단유형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장호와 김정희(1992)는 상담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목표와 내담자들에게 기대하는 몰입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4-5명에서 10명 이내의 수준이 보통이고 대체로 5-8명의 구성원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메타분석의 결과, 박소연(1994)은 6-15명(1.06)으로 구성된 집단크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고, 김수진(2001)은 6-9명(2.19)으로 구성된 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18명 이상 집단(1.70), 10-13명(1.35), 14-17명(1.28)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2002)는 20명이상(1.13)의 집단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안나(2003)는 11-15명으로 구성된 집단(-1.87)이 가장 큰 불안감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고, 배소정(2004)은 집단크기가 5-9(1.35)명으로 구성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집단 구성원의 특성과 집단의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집단 회기 수도 달라진다.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2002)는 10-14회기를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5-9회기(0.76)와 15회기이상(1.05)을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배소정(2004)은 15-19회기(1.14)로 구성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고, 임은미, 임찬오(2004)는 6-10회기(0.77)로 구성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조민아(2004)는 5-9회기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정선(2004)은 5회기미만(1.48), 채명희(2006)는 11-20회기(0.56)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

고 보고하였다.

강진령(2004)은 회기 당 시간이 집단의 역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집단 원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사를 꺼내놓고 집단 내에서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필요한 만큼은 다룰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연령이나 기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30-40분, 고학년은 40-60분 정도가 알맞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실시된 집단상담의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박소연(1994)은 60-120분(1.16)이 가장 효과적이며, 김수진(2001)의 연구에서는 30-60분(2.41), 61-90분(1.44), 91-120분(1.45)으로 30-60분 사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은미와 임찬오(2004)는 76-105분(0.87), 46-75분(0.75), 106-120분(0.56), 45분 이하(0.30)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보고하였으며, 배소정(2004)은 60분 이상 90분 미만(1.17)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집단구성원의 연령이나 집단 구성의 특성,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회기 당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학교급이나 연령, 성별 등 구성원의 특성과 집단크기, 회기 수와 회기 당 시간 등의 집단설계 및 운영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전제로 하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도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양친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집단구성원의 특성,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특성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구성원의 특성(학교급, 성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넷째,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특성(프로그램 유형, 집단크기, 집단회기 수, 집단회기 당 시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 연구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9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국회전자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각 사이트에서 2009년 4월 1일 현재로 검색 가능한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상담', '집단치료', '프로그램', '결손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편부모가정' 등을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인터넷으로 공개되지 않은 연구는 해당대학에 상호대차를 신청하여 수집하였다. 위 과정을 거쳐 수집한 연구논문은 총 131편이었다.

#### 연구대상의 선정

논문 선정기준은 오성삼(2003)이 밝힌 '메타분석의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따랐다. 첫째, 비교집단이 아닌 무처치 통제집단을 설정한 실험연구나 준실험연구 설계 방법을 이용한 경험적 연구이어야 한다. 둘째, 실험처치에 있어 독립변인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셋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최소 5회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관찰기록과 같은 질적연구가 아닌 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로,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평균, 표준편차, t, F, p값 등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셋째, 사전-사후 검사 방식을 채택하고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연구여야 한다. 이는 사전검사에서 동질성을 보여주지 않거나, 사후 검사결과만 보이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집단이 이질적이더라도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포함하였다. 또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무선배정을 하였으며, 제시된 결과치가 두 집단이 동질적임을 보여주는 연구는 포함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논문 55편이 최종적으로 메타분석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통계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이상치 처리를 위해 2 표준편차 범위를 넘는 값은 제외시켰으며, 각 연구의 모든 종속변인에 대해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에는 각각 1-3 개의 종속변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99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 자료분석

#### 연구 대상의 특성 변인 코딩

먼저 코딩시트를 이용하여 본 연구대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55편의 연구에 대한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코딩 항목으로는 A. 연구 기초자료(일련번호, 연구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자료출처), B. 표본에 대한 기술(학교급, 성별, 가정의 구조적 특성), C. 연구 설계에 대한 기술(전체 사례 수, 실험집단 수, 실험집단 크기), D. 처치에 대한 기술(프로그램 유형, 회기 수, 회기 당 시간, 측정변인, 주당 회기 수), E. 효과크기에 대한 자료(측정변인, 통제집단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성되었다. 코딩시트는 위의 5항목을 토대로 총 17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연구논문 한 편당 한 개의

코딩시트를 작성하였다.

먼저, 선정논문 55편에 대해 1차 코딩시트를 완성하였고,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생 2명이 1차 코딩시트를 다시 확인하였다. 3명의 코딩작업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97.2%였다. 평정자 3인 간에 불일치하는 문항은 상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 자료분석

먼저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평균 효과크기에 역변량 가중치를 더해 새로운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통제집단 평균(50%)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실험처치 후 평균의 변화량을 백분율(%)로 살펴보기 위해 비중복 백분위 계수  $U_3$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간 효과크기 차이와 관련변인 별로 집단 간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 선정한 55개의 연구물에서 나온 효과크기로부터 전체 평균 효과크기(ES)를 산출하였다. 이상치 처리를 위해 전체 평균으로부터 2 표준편차 범위(-1.12 - 4.08)를 구한 후 범위 이외의 값 5개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효과크기의 수는 총 99개였다. 효과크기는 Cohen(1977)이 제안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을 따라 0.20 이하는 작은 효과크기, 0.50은 중간 효과크기, 0.80 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표 1. 전체 평균 효과크기

	N	평균 효과크기	$U_3$ (%)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이상치 처리 후	99	1.19	88.4	0.047	1.10 - 1.29
이상치 처리 전	104	1.39	91.87	0.0465	1.31 - 1.49

주.  $\overline{ES}$ 의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1.19로 나타났다. 이것은 Cohen(1977)의 해석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라 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비중복 백분위 지수( $U_3$ )는 88.4%이고, 표준오차를 고려한 전체 평균 효과크기의 범위는 신뢰수준 95%에서 1.10~1.29이다. 이 연구에서 구한 평균 효과크기 1.19는 통제집단보다 실험 처치 후 실험집단이 38.4%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집단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 학교급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학교급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초등학교(1.40)와 중학교(0.92)는 큰 효과크기, 고등학교(0.28)는 작은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게 집단상담 프로

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학교급에 따른 효과크기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 대상 집단이 고등학생 대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대상 집단의 사례수가 월등히 많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성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비양친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혼성집단(1.22)과 여성집단(1.04)은 큰 효과크기, 남성집단(0.69)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혼성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제일 크고, 다음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 남성집단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집단

표 2. 학교급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i>n</i>	$\overline{ES}$	$U_3$ (%)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초등학교	56	1.40	91.9	0.06	1.28 - 1.52
중학교	32	0.92	82.1	0.07	0.78 - 1.06
고등학교	7	0.28	61.1	0.17	-0.06 - 0.62

주.  $\overline{ES}$ 의 범위는 95% 신뢰구간.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 2편, 19세 이상 대상 연구 2편 제외,  $N=95$

표 3. 학교급에 따른 효과크기 변량분석

	<i>SS</i>	<i>df</i>	<i>MS</i>	<i>F</i>	<i>Tukey</i>
집단간	9.26	2	4.63	7.26**	초등학교 > 고등학교
집단내	58.66	92	0.64		
합계	67.92	94			

\*\* $p < .01$ .

표 4. 성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i>n</i>	$\overline{ES}$	$U_3$ (%)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남성	7	0.69	75.6	0.17	0.37 - 1.02
여성	14	1.04	85.0	0.14	0.77 - 1.30
혼성	51	1.22	88.8	0.07	1.09 - 1.35

주.  $\overline{ES}$ 의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이다. 성별 미상 연구 27편 제외,  $N=72$

표 5.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종속변인	n	$\overline{ES}$	$U_3$ (%)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사회성	9	1.54	93.8	0.16	1.21 - 1.86
자아존중감	20	1.51	93.4	0.11	1.29 - 1.73
자기개념	13	1.27	89.7	0.14	1.00 - 1.53
우울, 불안	15	1.24	89.3	0.06	1.14 - 1.35
대인관계, 또래관계	7	1.22	88.9	0.18	0.87 - 1.57
학교생활적응	12	0.60	72.7	0.13	0.35 - 0.86

주.  $\overline{ES}$ 의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이다. 5편 이상 연구만 유목항목으로 설정함, N=76.  
자기개념 항목: 자기표출, 자기통제력, 사회적자기개념, 자아효능감 등 포함.

구성원의 성별에 따라 효과크기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하는 종속 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표 5는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인 가운데 사회성 변인과 대인/또래관계 변인은 개념상 유사한 면이 있으나 연구목적과 사용된 측정도구(사회성 척도, 대인-또래관계 척도)를 고려하여 다른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평균효과크기는 사회성(1.54), 자아존중감(1.51), 자기개념(1.27), 우울과 불안(1.24),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1.22), 학교생활적응(0.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만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였고,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큰 효과를 보였다.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에 따라 효과크기의 평

### 프로그램 운영상의 특성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현예술통치료 프로그램(1.80)이 가장 컸으며, 사회성 프로그램(1.67), 자기성장 프로그램(1.45), 자기주장 프로그램(1.40), REBT이론 적용 프로그램(1.10), 해결중심적 접근 프로그램(0.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큰 효과를 보였다(표 6 참조).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표 7에 의하면, 집단의 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표 6.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프로그램 유형	n	$\overline{ES}$	$U_3$ (%)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표현예술통치료	23	1.80	96.4	0.13	1.54 - 2.05
사회성	6	1.67	95.3	0.19	1.29 - 2.06
자기성장	11	1.45	92.7	0.15	1.16 - 1.75
REBT	6	1.10	86.3	0.18	0.75 - 1.45
자기주장	9	1.40	92.0	0.16	1.09 - 1.71
해결중심	15	0.98	83.6	0.14	0.70 - 1.26

주. 표현예술통치료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등 포함.  
5편 이상 연구만 유목항목으로 설정함, N=70.



표 7. 집단 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집단 크기	<i>n</i>	$\overline{ES}$	$U_3(\%)$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4 - 9명	44	1.35	91.1	0.11	1.14 - 1.56
10 - 14명	40	1.30	90.4	0.08	1.15 - 1.46
15 - 19명	12	1.13	87.0	0.16	0.82 - 1.43

주.  $\overline{ES}$ 의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이다. 20명 이상 구성된 집단 대상 연구 3편 제외,  $N=96$ .

4-9명(1.35), 10-14명(1.30), 15-19(1.13)명의 순이었으며, 모두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집단크기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준다. 8~10회(1.25)로 구성된 집단 프로그램들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1 - 15회(1.11), 16회 이상(1.06)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집단 회기 수에 따른 변량 분석 결과, 집단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의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회기 수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표 8은 집단의 회기 수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보

표 8. 집단 회기 수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회기 수	<i>n</i>	$\overline{ES}$	$U_3(\%)$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8 - 10회	64	1.25	89.4	0.06	1.13 - 1.36
11 - 15회	20	1.11	86.5	0.11	0.90 - 1.34
16회 이상	12	1.06	85.5	0.13	0.80 - 1.33

주.  $\overline{ES}$ 의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이다.

8회 미만 연구물 1개 제외, 회기수를 밝히지 않은 연구물 2개 제외,  $N=97$

표 9.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회기 당 시간	<i>n</i>	$\overline{ES}$	$U_3(\%)$	표준오차	$\overline{ES}$ 의 범위
60분 미만	17	1.20	88.4	0.12	0.95 - 1.44
60 - 90분 미만	38	1.31	90.4	0.08	1.15 - 1.46
90 - 120분 미만	27	1.32	90.6	0.09	1.14 - 1.49
120분 이상	10	0.59	72.3	0.14	0.31 - 0.87

주.  $\overline{ES}$ 의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이다. 회기 당 시간이 불명확한 연구 7편 제외,  $N=92$

표 10.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변량분석

	<i>SS</i>	<i>df</i>	<i>MS</i>	<i>F</i>	<i>Tukey</i>
집단간	6.13	3	2.04	2.95 *	90-120분> 120분 이상
집단내	60.86	88	.69		
합계	66.99	91			

\*  $p < .05$ .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표 9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보여준다. 90 - 120분 미만(1.32), 60 - 90분 미만(1.31)이 비슷하게 가장 큰 평균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60분 미만(1.20), 120분 이상(0.59)의 순으로 나타났다. 120분 이상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머지는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90 - 120분 미만'으로 회기 당 시간을 구성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120분 이상'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보다 유의하게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표 10).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ES)는 1.19로 나타났다. 이는 Cohen(1977)이 제안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큰 효과이다. 다시 말해, 비양친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계현, 이운주, 왕은자(2002)는 국내에서 실시된 전체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연구에서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0.9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1.19는 이보다 더 큰 효과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양친가정 자녀라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효과가 일반 집단상담의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비양친가정 자녀들은 일반가정 자녀들보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힘든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양친가정 자녀들이 일반가정 자녀들보다 치료적 중재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처치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계현, 이운주, 왕은자(2002)는 특정 문제를 지닌 내담자로 구성된 집단의 평균 효과크기(1.34)가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의 평균 효과크기(0.8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의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측정된 김수진(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 효과크기가 1.70이었으며,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조성은(2004)의 연구에서도 전체 평균 효과크기가 1.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유미(2006)는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2.27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치료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결론과 더불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치료적 중재의 한 방법으로 권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구성원의 특성(학교급, 성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평균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초등학생이 가장 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은 초등학생에게 실시할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발달상의 특성에 의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양친가정 초등학생 자녀는 집단상담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슷한 환경에 처한 또래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불안정한 가족구조로 인한 열등의식과 심리적 갈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이경자, 2005). 김계현, 이윤주, 이왕자(2002) 역시 국내 집단상담 효과연구 메타분석에서 초등학생(1.13) 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크고, 중학생(1.00), 고등학생(1.02), 대학생(0.64) 순으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평균 효과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치료적 중재 차원에서 비양친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적응과 복지를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양친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혼성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제일 크고, 다음으로 여성집단, 남자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조민아(2004)는 혼성집단(1.27)이 여성집단(1.08)과 남성집단(0.87)보다 대인관계에 미치는 집단상담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고, 조성은(2004)도 청소년 문제 행동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의 메타분석에서 혼성집단(1.67)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여성집단(1.49), 남성집단(1.22)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향후 비양친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동성집단 보다는 혼성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사회성(1.54), 자아존중감(1.51), 자기개념(1.27), 우울과 불안(1.24),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1.22), 학교생활적응(0.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척도만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였고,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비양친가정 자녀들이 집단상담에 참여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발달

시키며,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 중간정도의 평균 효과크기를 보고하여 다른 변인들에 비해 낮은 효과성을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양친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데 약간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변인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영역 자체가 효과를 거두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 앞으로 비양친가정 자녀의 수는 점점 많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이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비양친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프로그램 운영상의 특성(프로그램의 유형, 집단크기, 집단 회기 수, 회기당 시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먼저,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모두 큰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1.80)이 가장 컸으며, 사회성 프로그램(1.67), 자기성장프로그램(1.45), 자기주장 프로그램(1.40), REBT 이론 적용 프로그램(1.10), 해결중심적 접근 프로그램(0.98)의 순으로 나타나, 모두 큰 효과를 보였다. 집단미술치료, 집단놀이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시켜 표현예술치료 항목으로 묶어서 자료를 처리하였으므로 단독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성 프로그램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접근이나 유형별로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2002)에서도 집단이 표방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서 효과크기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외국의 메타분석 결과

들을 살펴보아도 여러 이론적 접근들 간에 효과크기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Smith & Glass, 1977; Heppner, Kivlinghan & Wampold, 1999). 따라서 특정 이론적 접근 또는 프로그램 유형만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예상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비양친가정 자녀들도 가정의 구조적 형태, 문제 유형, 학교급,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 가운데 그에 맞는 적절한 이론적 접근과 프로그램 유형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4-9명(1.35), 10-14명(1.30), 15-19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정선(2004)은 5-9(1.12)명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으며, 김윤지(2007)가 인지행동 집단상담이 아동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메타분석 연구에서 집단 인원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7-10명(-1.39), 11-15명(-1.34), 16-34명(-0.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원의 구성이 10명 이내일 경우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8-10회(1.25)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11-15회(1.11), 16회 이상(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은미, 임찬오(2004)는 6-10회기(0.77)로 구성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조민아(2004)도 5-9회기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이안나(2003)는 불안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10회기 미만(-1.11)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가 11회기 이상(-1.59)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보다 작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윤지(2007)는 11회기-13회기(-1.36)로 구성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불안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고, 유승은(2008) 역시 11회기-13회기(1.22)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

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효과크기 자체만으로 양적 크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한 것이며, 회기수에 따라 효과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회기수를 유목화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연구뿐 아니라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2002), 이안나(2003), 조민아(2004), 김윤지(2007)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회기수 외에 집단의 목적이나 집단설계 방식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효과가 높은 집단회기 수에 대한 결과는 상이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집단 회기 수가 16회기 이상을 초과할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소연(1994)은 20회기 이상(0.67), 임은미와 임찬오(2004)는 16회기 이상(0.53), 채명희(2006)는 21회기 이상(-0.28)으로 가장 낮은 평균 효과크기를 각각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집단 회기 수를 16회기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90-120분 미만(1.32), 60-90분 미만(1.31), 60분 미만(1.20), 120분 이상(0.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논문의 집단구성이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들의 평균 집중시간을 고려해보면, 2시간이 넘는 프로그램은 효과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2002)도 45분미만(1.14), 46분-75분(1.17), 76분-105분(1.05), 106분-135분(0.92), 136분 이상(0.60)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앞으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회기 당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령대별 주의집중시간을 고려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비양친

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이 초등학생(1.40)이고, 성별 구성에서는 남녀 혼성집단(1.22)일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표현예술치료와 사회성프로그램의 효과가 컸고, 집단크기는 4-9명(1.35), 집단 회기 수는 8-10회(1.25), 회기 당 시간은 90-120분 미만(1.32)으로 구성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앞으로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상의 결과들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1.19로 큰 효과크기에 속한다. 이는 비양친가정의 자녀들이 특수한 집단이고 치료적 중재가 필요한 집단이므로, 처치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별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목적과 일치하는 효과가 있는 연구만을 출판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를 배제할 수 있다. 즉, 출판에 의한 편파성(Rosental, 1980) 문제로서, 실험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들보다 출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효과크기의 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미국심리학회, 1994)의 출판지침서에서도 효과크기를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이용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자료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외면하는 경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록 선정기준에 적합한 논문들만 메타분석에 활용하였지만 개별 연구의 질적 수준은 고려되지 않았다. 메타분석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 하나는, 질적으로 낮은 연구를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와 통합함으로써 결론의 추출에 편파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개별 연구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통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비중을 두고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오성삼, 2003).

셋째, 자료코딩 과정에서 학교급에 따른 평균 효과크

기를 살펴보기 위해 코딩항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1-4학년이거나, 3-5학년으로 선정한 연구가 많아 유목항목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자료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초등학교 한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주의를 요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발달상 특성이 다르므로 초등학생으로 통합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에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연구할 때는 연구대상의 발달상 특성을 고려하여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종속변인과 프로그램 유형을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개별 논문의 연구자가 밝힌 명칭을 기본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같은 명칭이라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명칭이 달라도 내용상 유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종속변인 가운데 사회성과 대인-또래관계는 사용된 명칭에 따라 다른 변인으로 분류되었으나 개념상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표현예술치료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포함하여 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으나 이들 개별 치료 프로그램들을 통합할 이론적 근거나 당위성이 불충분하였다. 앞으로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충분한 양의 연구물이 축적된다면 분류기준을 엄격히 하여 세부적 내용에 따라 그 효과를 메타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비양친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해 치료적 중재가 필요할 때,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여러 접근 중에서 집단상담이 하나의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비양친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전체적 효과 및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집단상담의 구성과 실시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진령 (2004).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강진령, 손현동 (2004).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1), 81-90.
- 김경집 (2005).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2007). **상담심리학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3(1), 47-62.
- 김수진 (2001).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효과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 이미옥 (2007).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4(1), 83-102.
- 김윤지 (2007). **인지행동 집단상담이 아동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진경 (2005). **REBT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혜 (2003). **REBT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여중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1994).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샘, 연문희 (2004). 부모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11-29.
- 배소정 (2004).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환 (2006). **집단괴롭힘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삼 (2003).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오은순 (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열린교육연구**, 9(1), 19-45.
- 유승은 (2008).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의 메타분석**.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 (2005).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 이안나 (2003). **인지행동 집단상담의 불안감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2006).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김정희 (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 임은미, 임찬오 (2003). 국내집단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1(2), 3-11.
- 임지선 (2001).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본주의적/인지·행동적 집단 상담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조민아 (2004). **집단상담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은 (2004).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11(3), 135-150.
- 조윤희 (1990). 집단경험이 빈곤, 결손가정 청소년의 사

- 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전문연구지 동광**, 87, 40-68.
- 채명희 (2006). **학교적응을 위한 국내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선 (2004). **집단상담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헤럴드경제 (2008, 10, 07). **가족해체로 독거노인, 조손, 한부모가구 매년 증가**.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Capaldi, D. M., & Patterson, G. R. (1991). Relation of parental transitions to boys' adjustment problems: 1. A linear hypothesis; 2. Mother at risk for transitions and unskille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89-504.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s* (Rev. ed.). NY: Academic Press.
- Emery, R. E., Kitmann, K. M., & Waldron, M. (1999).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separated and divorced families. In E. M. Hetherington (Eds.),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pp. 323-344.). Mahwah, NY: Erlbaum.
- Heppner, P. P., Kivlinghan, D. M., & Wampold, B. E. (1999). *Research design in counseling*(2nd ed.). California: Brooks / Cole.
- Kalter, N., Pickar, J., & Lesowitz, M.(1984). School-based developmental facilitation groups for children of divorce: A preventive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613-623.
- Rosenthal, R. (1980). Combining probabilities and the file drawer problem. *Evaluation in Education*, 4, 18-21.
- Smith, M. L., & Glass, G. V. (1977). Meta-analysis of psychotherapy outcome studies. *American Psychologist*, 32, 752-760.
- Stolberg, A. L. & Mahler, J.(1994). Enhancing treatment gains in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hrough skill training, parental involvement and transfer proced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1), 147-156.

원 고 접 수 일 : 2010.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0. 27.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09.

<연구대상 논문 목록>

1. 강문희, 김소연 (2005). 사회극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능력 및 자기표현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4), 1-20.
2. 강지영 (2008).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대인불안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강진희 (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강효연 (2006). **통합예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고미숙 (2007). **집단놀이활동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고애화 (2008).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자기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경집 (2005).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김금주 (2008).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민경 (2003). **집단미술치료가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셋별 (2003).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 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선희 (2006). **해결중심 단기상담이 결손가정 남중생의 자아존중감, 책임감,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세옥 (2005). **자기성장 프로그램 적용이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김영아, 이미옥 (2007).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4(1), 83-102.
14. 김은정 (2007).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유희 (2003).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시설아동을 위한 독서치료의 효과 - 우울, 수치심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김진미 (2006).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김현정 (1998). **MMTIC 성장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김혜민 (2003).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 우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김혜정 (2007).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문진경 (2005). REBT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박문숙 (2005). 자기표출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동의 표출행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박미혜 (2003). REBT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박신희 (2003).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박영선 (2007).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내부-외부 통제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박완주 (2007). 문학치료적 중재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 박혜원 (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우울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백재욱 (2008).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사공말숙 (2005).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향상에 미치는 효과.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서문영 (2007). 집단놀이치료에 의한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정서적 부적응과 이혼지각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송영순 (1996).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학생의 개인신념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안지숙 (2008).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양대진 (2008). 결손가정 여중생을 위한 다중지능 기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양지희 (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오은순 (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9(1), 19-45.
35. 윤위철 (2005). 자기주장훈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이경자 (2005).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이명희 (2007).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트레스대처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이미애 (2007). **이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이미원 (2003). **결손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증진에 미치는 집단상담 효과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이선영 (2006). **심상치료가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이옥재 (200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양식 변화와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 이은미 (2001). **교류분석(TA) 프로그램이 결손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자율성 및 인생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이은숙 (2006). **집단치료놀이를 통한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증진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이재을 (2008).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전문계 결손가정 여고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이주영 (1998).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편부모 아동의 자기표출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 이진아 (2007). **사회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중학생의 사회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이화연 (200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임혜경 (2003).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9. 정봉숙 (2008). **역할놀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일반가정 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0. 정순이 (2003). **의미요법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고등학생들의 삶의 목적수준 및 책임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 정영태 (2005). **자기표출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2. 조운희 (1990). **집단경험이 빈곤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전문연구지 동광**, 87, 40-68.
53. 최경일 (2008).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교사 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47-67.
54. 황경희 (2000).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 홍혜화 (2006).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Parentless Family

Yun Ji Cho

Ulsan College

Soonhwa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grate and to identify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conducted for the children of parentless family in Korea from 1990 to 2009, using meta-analysis technique. 55 articles were selected from the on-line database at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KERIS.

In total, 55 studies were analyzed and 99 effect sizes were produc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overall mean effect size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parentless family in this study turned out to be 1.19. This implies that if the average size of effects of the controlled group is 50 percentile in normal distribution, then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come 88.4% percentile, which means the latter surpasses the former by 38.4% percentile.
- (2)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children of parentless family was most effective when it was implemented with the primary-school students.
- (3) The average size of effects was high when the groups were formed with the male and female mixed groups.
- (4) When programs were compared by the dependent variables, it was revealed that group counseling was most effective in improving the 'sociality'.
- (5) When compared by the program type, art therapy showed the highest average effect size, and the difference of average effect size among program types was significant.
- (6) When studi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its group size, the most effective group size was 4-9 people. The difference of average effect size among groups was also significant.
- (7) Those studies that were made of 8-10 sessions reported the highest average effect size.
- (8) The session lasted 90-120 minutes turned out to be most effective in terms of session duration.

In sum,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children of parentless family was very effectiv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unselors, school-based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should make greater use of group counseling for the children of parentless family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Key words: parentless family, broken family, group counseling, meta-analysis*

